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 19.(금)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건설과 도시조명팀
2	x	○	과장 : 오석천 (02-3677-2420)
			팀장 : 장용순 (02-3677-2466)
			담당 : 정진영 (02-3677-2467)

## 과천시 문원동 공원마을, 부림동 단독지역 전선 지중화 추진

- 문원동 공원마을, 부림동 전선 지중화를 위한 이행협약 체결
- 전봇대 뽑고 전기줄 땅속으로.... 거리 갈끔 해진다.

과천시는 19일, 문원동 공원마을 및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역 배전선로 지중화는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 2019년 7월, 송전선로 근접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거나 향후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 중심도로를 선정해 한전 측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문원동과 부림동 일부 구역이 한전 측의 지중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통신사와 사전협의회, 지중화 이행협약서 사전협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이행협약으로 문원동 공원마을 0.9km 구간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0.8km 구간에 대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게 되며, 전주 54본, 변압기 27개소, 특고압 전선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번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는 각종 보안등, CCTV, 마을방송 등 시

설물 공사비와 도로포장 복구비용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 중 54억 원은 과천시가, 나머지는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

공사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전선 제거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인도의 지장물 철거로 시민들의 보행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순간이다”라며 “올해 내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별양동과 중앙동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